

[자료소개]

## 부산·동래 遊記 자료에 대하여(1)

— 조선후기 부산동래 기행시문을 중심으로 —

정 경 주 / 경성대학교 한문학과

### 目 次

- |                            |                  |
|----------------------------|------------------|
| I. 서설                      | 4) 梅屋 朴致晦의 南遊紀行  |
| II. 부산 동래 기행 시문 해제(1)      | 5) 式好堂 安彦繆의 觀海紀行 |
| 1) 柳亭 崔應泗의 蓬萊紀行            | 6) 西扉 崔宇淳의 東遊錄   |
| 2) 竹牖 孫奎永과 棄翁 孫海永의<br>南征卽事 | 7) 蓮溪 朴時燦의 南遊錄   |
| 3) 晦亭 閔在南의 東遊錄             | III. 소결          |

### I. 서 설

한반도의 동남단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지역은 산과 강과 바다의 수려한 풍광과 바다 건너 일본과의 교역 접점이라는 지리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라와 고려 이래로 시인묵객들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선왕조 중엽에 발발한 임진왜란 이후 부산 왜관이 설치되면서 이곳은 대일교역의 거점도시가 되어, 일본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인 통신사나 일본에서 오는 무역 사절을 맞이하는 접위관 등의 행차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국토 남단의 관방을 돌아보고 왜관 주변의 이국 풍물을 접하려는 유람객들의 探勝 행렬이 빈번하게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東萊府使로 부임하거나 通信使 또는 接慰官으로

부산에 와서 시문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특히 東岳 李安訥(1571-1637)의 「萊山錄」이나 樸翁 李正臣(1559-)의 「萊州錄」, 汾厓 申晷(1628-1687)의 「萊山錄」을 비롯하여, 海月 黃汝一(1556-1622), 息庵 金錫胄(1634-1684), 月洲 蘇斗山(1627-1593), 恬軒 任相元(1638-1697), 謙齋 趙泰億(1675-1728), 有懷堂 權以鎭(1668-1734) 등은 수십 수에서 수 백 수의 시문을 남겼고, 이들 외에도 십여 수 이상의 시문을 남긴 사람이 적지 않으니, 이들이 남긴 시문을 모두 합치면 천여 편이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런데 공적인 업무 때문에 부산 동래지역을 찾아왔던 관원들과는 달리, 부산 동래 지역의 고적과 풍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일 부러 이 지역을 유람하고 기록을 남긴 이도 있다. 이들이 동래지방의 기행에서 주로 찾았던 곳은 절영도, 몰운대, 해운대, 낙동강 하구 등의 자연경관 외에 특별히 동래 온천과 부산 왜관이 가장 주목받은 곳이었다. 부산 서쪽 낙동강을 건너 가야의 고도인 김해가 있고, 북쪽으로 신라의 고도인 경주가 있으나, 바다라는 자연경관과 온천과 왜관이라는 인문 경관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더구나 이국의 풍물을 접할 수 있는 왜관은 더할 나위 없는 유람의 소재였다. 더욱이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부산 동래 지역은 외국 문물과 직접 접촉하는 항구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부산 동래 지역은 유람객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곳이 되었고, 이에 따라 부산 동래지방을 여행하고 그 여행 기록을 시문으로 남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고려와 조선조를 통하여 부산 동래 지방을 찾은 유람객들이 남긴 遊記 또는 紀行 詩文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개항을 전후로 하여 부산 동래 지역이 새로운 문물의 도래지로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행자가 급증하고 따라서 그들이 남긴 기행 시문도 많아졌다. 이들 유람

객들이 남긴 시문은, 유람객들의 시선에 비친 부산 동래 지방 문화의 특수한 면모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이 즐겨 찾았던 명승지와 그들이 경유한 여행경로를 통하여 부산지역을 둘러싼 관광 명소의 보존과 개발은 물론 부산 문화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방을 여행한 기록은 신라 말의 崔致遠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 중엽의 李奎報나, 고려 말의 雪谷 鄭誦(1309-1345)나 圓齋 鄭樞(?-1382) 등이 이 지방을 찾아 읊은 시가 남아 전한다. 조선 초기에도 郊隱 鄭以吾(1347-1434), 四佳亭 徐居正(1420-1488)이나 佔畢齋 金宗直(1431-1492), 虛白堂 成俔(1439-1504), 潘溪 好仁(1445-1494), 秋江 南孝溫(1454-1492) 등이 시문을 남긴 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시문은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행 목적이나 그 日程과 經路를 파악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람의 목적으로 부산 동래지방을 기행하여, 그 일정과 경로를 분명하게 밝혀 기록한 기행 시문 가운데 조선 중기 영천 사람 柳亭 崔應泗의 「蓬萊紀行」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들어 부산 동래지방의 기행 시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寒岡 鄭述의 『蓬山浴行錄』<sup>1)</sup>이다. 이 기록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학문을 계승하여 17세기 초반 당대 영남 학계를

1) 『蓬山浴行錄』은 모두 31권 62면으로 이루어진 목활자본 1책으로, 임자년(1912) 성주의 檜淵書院에서 간행하였다. 한강의 13대 후손 鄭在夔의 발문에 의하면, 『봉산욕행록』은 본디 한강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 여행을 수행하였던 한강의 제자 李潤雨(1569-1634)의 문집인 石潭集에 초고본이 전해오고 있었는데, 다시 밀양의 盧學士 집에 전해오던 초고본 1책이 있어서, 이 두 책을 참고하되 상세한 쪽을 취하여 정본을 만들어 活印에 부친다고 하였다. 이와 별도로 李潤雨의 『石潭集』 권4의 제37권부터 제53권까지 「蓬山浴行錄」 한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이 책과 대동소이하나, 회연서원 간본의 『봉산욕행록』에는 『석담집』 「봉산욕행록」에 없는 내용이 간간히 추가되어 있다.

영도하였던 대표적인 학자 寒岡 鄭述(1543-1620)가 그의 나이 75세 때인 만력 정사년(1617) 초가을에 온천욕으로 요양을 하기 위하여, 성주에서 출발하여 동래지방을 여행한 기록이다. 이 책은 동년 7월 20일 이른 아침에 한강이 성주를 출발하여 9월 4일 귀가할 때까지 45일간의 기록으로, 여러가지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遊記이다. 다만 이 기록과 관련하여 최근에 석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별도로 소개하지 아니한다.

이 밖에도 조선 중기 이후 부산 동래지방을 유람한 기록이 적지 많으므로, 그 가운데 그 여행 일정과 경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문들을 모아 간략한 논평과 함께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원본의 내용을 影印으로 실자니 그 분량이 너무 많기에 원문을 가공하여 몇 차례로 나누어 실음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후일 관련 자료집의 편찬 간행에 대비하고자 한다.

## II. 조선조 부산 동래 기행 시문 해제

### 1. 柳亭 崔應泗의 蓬萊紀行

柳亭 崔應泗(1520-1612)는 경상북도 永川의 鳴山 二水리에 태어나 山本里로 옮겨 거주한 永陽崔氏로 자가 孝源이다. 그는 중종 38년(1543) 생원시에 합격하여 長鬚와 鎭海 등지의 訓導를 역임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족을 데리고 대구의 八公山으로 피난하였다가, 의병과 승군을 모아 아들 崔擘南, 崔起南 등에게 지휘하게 하여 공을 세웠고, 사후에 吏曹參判의 追贈을 받았다.

『柳亭逸稿』에 실려 있는 蓬萊紀行은 최응사의 나이 50세인 선조 기사년(1569) 초봄에 동래부사 黃博의 초청을 받아 동래에 유

람한 기행문으로 전문 486자의 짧은 글이다. 그 글의 첫머리에 “내 일찍이 바닷가의 봉래는 곧 仙館이라 들었으나 인연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동래부사 황박이 마침 나의 室人 李氏의 내종형제인데 나를 매우 긴밀하게 초청하였다”는 말이 있다. 동래부지에 의하면 황박은 선조 무진년(1568) 10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기사년(1569) 6월까지 직책에 있었으니, 최응사의 동래 유람은 황박의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최응사의 동래 기행은 영천 大田里에서 출발하여 첫째날은 경주 牟梁에서 숙박하고, 이튿날은 양산 通度寺에서 숙박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東萊府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글의 말미에 동래부에서 유람한 내력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다.

檠戟이 엄숙하고 나졸이 벌여서 있는 刺史의 관청은 결코 儒者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구름 가의 日域과 바닷가의 관문은 志士의 눈을 통과하게 하기에 족하였고, 蓬萊山の 소식은 물을 곳이 없으나 海上의 괴이한 이야기는 참으로 실제 이야기였다. --- 함께 유람한 자는 黃慶彦 朱億祥 李思沃 宋億祥이다. 鶴巢臺와 梵魚寺, 溫井의 목욕, 草梁의 防戍와 多大浦 絶影島의 수만 수천 기상은 길이 다급하고 생각이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최응사의 蓬萊紀行은 그 기록 내용이 간략하고 또 여행길의 느낌을 기록한 다른 시문이 없어서 매우 소략하다. 그러나 이것이 임진란 이전의 유일한 동래 유람기라는 점과, 이 시대 부산지

방을 여행하는 유람객이 들리는 몇 곳의 명승지가 근 500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이다.

## 2. 竹牖 孫奎永의 南征卽事과 棄翁 孫海永의 次韻詩

棄翁 孫海永(1785-?)은 밀양의 山外面 美羅村에 거주한 一直孫氏로, 본디 이름을 奎一이라 하고 자를 士浩라 하였으나, 뒤에 이름을 海永, 자를 世瞻으로 바꾼 듯하다. 그의 시문집으로 『棄齋稿』 零本 1책이 남아 전하는데, 그 가운데 竹牖 孫奎永이 동래 부산을 기행하고 지은 紀行詩稿인 南征卽事와 기옹의 차운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竹牖 孫奎永(1791-?)은 밀양 산외면 竹院에 거주한 사람으로 기옹과 같은 일직손씨인데, 그 자가 南翼이다. 밀양 다원에 살았던 東阿 李濟永(1799-1871)의 문집에 「酬孫世瞻海永贈孫南翼韻」시 한편이 실려 있고, 그 小註에 “海永의 自號는 棄翁이므로 마지막 구절에 조롱하였다.[海永自號棄翁 故末句嘲之]”는 말이 있다. 그런데 『棄齋稿』에는 東阿의 이 시를 실어놓고 이르기를 “上枝의 李大雅가 竹牖와 왕복한 시를 보고는 이 운을 따라 시를 지어 보냈다.[上枝李大雅 見竹牖往復詩 仍步此韻見贈]”는 말이 있다. 동아 이제영이 칠곡의 上枝 마을에 살다가 밀양의 다원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상지의 이대아는 곧 동아 이제영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자호를 棄翁이라 한 사람은 孫海永이 분명하고, 그의 자는 世瞻이며, 「기재고」에 竹牖라고 일컬은 사람은 곧 『東阿集』에 이른 바 孫南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재고」에는 또한 기옹 본인의 이름을 孫奎一, 자는 士源이라 기록하고 있으므로, 손규일과 사원은 손해영의 본디 이름과 자였던 것으로 보

인다.

「南征卽事」는 죽유 손규영이 현종 무술년(1838) 8월에 밀양의 남방인 동래와 부산을 기행하면서 지은 紀行詩이다. 『기재고』에 그 내력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나는 병으로 山齋에 엎드려 있어서 잠에 지쳐 흥미한데다가 더욱이 필연과는 소원해졌다. 마침 族從 竹牖가 시 한 축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곧 무술년 8월 南征卽事였다. 재삼 읽어보니 湖海의 바람과 안개가 입 안에 향기롭게 풍겼다. 나 또한 齋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입맛을 다시는 중과 같은지라, 감히 臥遊의 생각을 내어 억지로 운을 따라 지었으니, 마치 눈먼 사람이 길을 더듬듯이 서투름이 있고, 추한 여인이 西施가 찡그리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과 같으나,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속된 말이라 간장독을 덮더라도 또한 영광이겠다.

이 기록에 의하면 「南征卽事」는 죽유 손규영의 기행시인데, 기옹 손해영이 그 시를 보고 차운한 시와 죽유의 원래 시를 함께 묶어 수록하여 놓았다. 기록된 순서로 보면, 출발하여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은 다음과 같다.

發行 — 蓮花洞 諸石堂 — 鵲院 — 院洞 — 臨鏡臺 — 黃山 — 梵魚寺 — 倭館 — 溫泉 — 東萊邑 朝暎樓 — 鄭墓 — 永嘉臺 — 鄭撥 碑 — 바다와 絶影島 관람 — 周禮 — 桐院 — 구포 倭城

南征卽事の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19세기 초 밀양 사람들의 부산 유람의 경로는 대개 낙동강의 연변을 따라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밀양 남쪽의 삼랑진 작원관에서 시작하여 원동과 임경대를 거쳐 양산의 황산까지 낙동강 강변의 길을 내려온 다음, 다시 물금을 거쳐 범어사에 도달하였다가, 다시 귀로에는 주례를 거쳐 낙동강 동편 길을 따라 북상하였던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시대 부산의 주요한 관광지로 범어사와 온천과 정묘 외에 왜관과 영가대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晦亭 閔在南의 「東遊錄」

晦亭 閔在南(1802-1872)은 경상도 산청의 大浦에 세거한 여흥민씨로 자는 謙吾이며, 호는 聽天 또는 自笑翁이라 하였다. 그는 어릴 때 家學으로 학문을 성취하고, 중년 이후 전국을 유람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전라도 長城의 蘆沙 奇正鎭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였으며, 66세 때인 정묘년(1867)에 獻陵參奉으로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평생을 마쳤다.

그는 문집 9권을 남겼는데, 거기에는 지리산 기행 기록인 「遊頭流錄」과 부산 기행 기록인 「東遊錄」 등 두 편의 遊記가 포함되어 있다. 『晦亭集』 권8에 실려 있는 「東遊錄」은 약 2,600여자에 이르는 장문의 기행문이다. 『회정집』 권2에는 의령의 鼎津 나루터를 건너면서부터, 기행을 마치고 涓梁津 나루를 건너 귀가할 때까지 동유기행 도중에 지은 17수의 시가 별도로 실려 있다.

「동유록」에는 정확한 연대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부산 기행을 마치고 귀로에 밀양의 영남루에 들렀을 때, 繡衣使 任應準(1816-1883)이 밀양 영남루의 동편 冊室에 좌정하여 御使의 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였다<sup>2)</sup>고 하였다. 임응준은 현종

14년(1848)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서 철종 무오년(1858) 3월 경상좌도암행어사의 책무를 마치고 복명하였다. 민재남의 「동유록」은 菊月에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민재남의 「동유록」은 1857년 9월의 여행 기록임이 분명하다. 민재남의 여행 노정은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의령 鼎津 — 마산 月影臺, 浮鶴山, 金猪島 — 창원 — 김해 首露王陵, 竹島 — 明湖 — 長林 — 多大浦, 沒雲臺, 夜望臺 — 부산 倭館 — 溫泉 — 梵魚寺 — 양산 黃山驛, 龍塘 — 三浪 — 밀양 嶺南樓, 大堤里 점필재묘소 — 靈山 — 朴津 — 의령 新蕃

그는 김해의 죽도에서 배를 타고 명지를 지나 장림의 포구에 도착하여 다대포의 물운대 및 야망대를 유람한 뒤에 부산의 왜관에 도착하였다. 다음은 왜관에서 왜인과 대화한 대목이다.

막 부산으로 향하면서 왜관과 초량 등지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다가 홀연 왜인의 복장을 한 일곱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 매우 괴이하였다. 한 왜인이 나를 노인이라 부르면서 “나이가 몇이냐?” 고 물었다. 漢字 말은 조금 알겠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筆話로 소통하여, 그제서야 그의 성명이 平富政인 것을 알았다. 그의 말이 “우리나라에도 밀양박씨와 선산김씨가 있는데 그 선조는 모두 귀국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작은 왜인이 한 자 남짓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서 머리 쪽으로 끄집어내어 들어서 눈에 갖다 대는데, 저들의 이

---

2) 時繡衣任應準 在樓東小冊室 敲扑喧囂 嗔喝截嚴.

큰바 千里鏡이었다. 나에게 밀어 주면서 말하기를 “노인께서 한 번 보시라” 고 하였다. 한쪽 눈에 갖다 대니, 눈이 어지러워 보이는 것이 없더니, 한참 만에 시선이 안정되자, 십리 사이에 나물 캐는 여인이 광주리를 이고 있는 모습과 벗짐을 지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천리경 앞에 또렷이 나타났다. 참으로 奇寶이다. 어제는 異域의 산천을 보고는 스스로 奇觀이라 하였는데, 이제 이국 사람과 상대하여 담소하고 또 寶鏡을 보았으니 그 기이함이 또 어떻겠는가?

그는 동유기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시 ‘渭梁津頭’에는 그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幸生箕子國 다행히도 기자의 나라에 태어나  
又見蓬萊山 또 봉래산을 구경하였네.  
老去方知足 늙어가면서 만족할 줄 아나니  
臨風一笑還 바람에 한 바탕 웃고 돌아오노라.

회정의 부산기행은 아직 개항이 되기 이전이다. 그의 기행은 서부 경남의 산청에서 의령을 거쳐 마산포와 창원을 지나 김해에 도착한 뒤에, 명지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 長林에 도착하여 다대포와 왜관을 관람하고 부산진과 동래부로 거슬러 올라가 원동과 삼랑진을 거쳐 밀양으로 향하는 경로를 택하였다. 그의 여행 과정에는 왜관에서 왜인과 만나 천리경을 본 것을 특별히 기록하였는데, 왜관에서 외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이 시대 부산기행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梅屋 朴致晦의 「南遊紀行」

梅屋 朴致晦(1829-1893)는 경상도 함안 安仁里에 세거한 밀양 박씨로 자가 季章이며 호가 梅屋이다. 그는 어려서 가학으로 학문을 성취하고 性齋 許傳의 문하에 나아가 물었으며, 중년 이후에는 그 형인 晚醒 朴致馥과 함께 합천 三嘉의 황매산에 들어가 百鍊齋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다 포의로 세상을 마쳤다.

매옥문집 권1에는 「南遊紀行」이라는 표제 아래 ‘萬德嶺’ 이하 ‘海上逢立春’까지 19題 26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외에, 또 ‘宿巨濟大洋舟中’, ‘呈鄭萊伯顯德’ 등의 시가 있는데, 이 두 수는 남유기행 뒤에 다시 부산을 유람하였을 때 지은 시들이다. 기행 과정을 적은 글은 없지만, 수록된 시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그 노정이 대략 드러난다.

踰萬德嶺，溫泉，六隅亭，永嘉臺次五沙李貞肅公鼎運板上韻，觀捕鯨，咏毛蛤俗號昂藏久，贈釜山僉使申泰善，異槎船，戲贈越後兩兒，降仙臺，自牛巖泊絕影島，登絕影島眺望五六島，牧馬場，少憇海岸望萊館，過沒雲臺追懷鄭將軍運立謹崖壁有感，過三叉江望鳴島口號，海上逢立春，宿巨濟大洋舟中，呈鄭萊伯顯德，釜山鎮贈趙僉使儀顯，萬年臺落成宴韻

시의 목록을 보면 매옥의 부산기행은 김해에서 낙동강을 건넌 뒤에 만덕 고개를 넘어 곧장 온천으로 향하고, 동래읍을 거쳐 영가대로 갔다가 우암에서 배를 타고 절영도로 들어가서 오륙도와 목마장을 관람한 뒤에, 해안에서 왜관을 살펴보고는, 다대포의 물운대를 거쳐서 낙동강을 거슬러 명지와 삼차강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매옥의 남유기행은 그 기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행 도중 지은 시 가운데 부산첨사 신태선에게 감사를 표시한 대목이 나오고, 또 부산항에 정박한 異樣船을 보고 읊은 다음 시를 통하여 대략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         |                         |
|---------|-------------------------|
| 穹崇畫舫耀滄波 | 둥그렇게 채색한 고물이 파도에 빛나니    |
| 越後琉球兼薩摩 | 에찌고와 류우큐우와 사쓰마의 배를 겸하였고 |
| 捷舌侏儻同鳥獸 | 혀꼬부라진 이상한 말 새소리와 같은데    |
| 紺衫矮短若袈裟 | 감색 저고리 작고 짧아 가사와 비슷하네.  |
| 迎賓作敬羅泥塑 | 손님 맞아 경례함에 진흙 인형 벌인 듯하고 |
| 催米高呼立夜叉 | 쌀을 재촉하여 소리치며 야차가 서 있구나. |
| 三國儀形觀一席 | 세 나라의 예식 모습을 한 자리에서 보다니 |
| 平生奇翫此無加 | 평생의 기이한 구경 이보다 더할 게 없네. |

일성록에 의하면 철종 10년 경진(1860) 윤3월 25일의 기사 내용에, 경상감사 洪祐吉이 같은 달 15일 부산첨사 申泰善의 馳通에 의거한 동래부사 鄭獻教의 騰報에 의하여 올린 장계에 “淸나라 上海에서 일본으로 향하다가 표류해온 英國 상선 1척이 新草梁 앞바다에 정박하였다”는 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그 장계 내용에 그 배에 탄 110인의 승조원이 착용하고 있는 제복을 형용하여 이르기를 “착용한 옷은 흑은 청색 흑은 흑색인데, 위로 짧은 홀저고리, 아래로 짧은 홀바지가 모두 모직물이며, 옷깃을 맞대어 여미는 곳은 모두 단추를 달았고, 발에는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sup>3)</sup>고 한 기록이 있다. 시에 형용된 복장이 장계 내용의 복

3) 규장각 원문자료, 일성록 1860년 윤3월 25일 慶尙監司洪祐吉以東萊府漂到異船問情馳啓: 所着或青或黑 上單襦下單袴 皆是緞氈 合襟處 連結團樞 足着黑皮鞋 共一百十人.

장과 비슷하고, 그것이 또한 부산첨사 신태선이 재임할 때의 기록인 것으로 보면, 매옥의 부산기행은 바로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 틀림 없다. ‘呈鄭萊伯顯德’, ‘釜山鎮贈趙僉使儀顯’, ‘萬年臺落成宴韻’ 등 세 수는 정현덕이 동래부사로 부임한 1867년 가을 이후에 다시 부산을 방문하여 지은 시로 보인다. 매옥은 이와 별도로 철종 임자년(1852) 겨울에 배를 타고 대마도 해협을 바다로 나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로작업을 노래한 ‘南征觀海獵賦’를 지은 바 있는데, 이로 보면 적어도 세 번 이상 부산지방을 여행한 것으로 보인다.

매옥의 부산기행에는 개항 직전의 부산항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부산항에 정착한 이양선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또 부산 왜관에서 일본인 妓女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묘사한 「戲贈越後兩兒」와, 부산 항구에서 고래를 잡아 와서 분배하는 모습을 묘사한 「觀捕鯨」, 성계를 잡아먹는 풍습을 묘사한 「咏毛蛤俗號昂藏久」 등의 시편은 이 시대 부산항의 특별한 정취를 보여준다.

##### 5. 式好堂 安彦繆의 「觀海紀行」

式好堂 安彦繆(1846-1897)는 밀양의 金浦里에 세거한 광주안씨로서 자가 敬汝이다. 그는 고종 무인년(1878) 봄과 경인년(1890) 봄 등 두 차례에 걸쳐 밀양의 여러 벗들과 함께 부산을 여행하였다. 그의 문집에는 이때의 여행을 기록한 시 19수가 실려 있다.

무인년 : 三浪津值雨, 天晴渡津, 至金陵, 途中口占, 宿鳴湖, 宿長林趙友家, 野望臺, 登沒雲臺, 入倭館, 晚登東萊城, 浴溫泉, 宿梵魚寺, 還至院東贈別金友之梁山.

경인년 : 春日與李竺南敏裕姜栗坡尙壤再遊萊海初到鵲院, 暮抵新店, 錦湖作, 入梵魚寺, 行至蓬萊, 滯雨龜湖.

식호당의 문집에는 부산 기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지 않다. 다만 병인년 부산 기행을 출발할 적에 지은 「三浪津值雨」의 첫째 구절에 “十載經營觀海程”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그 구절을 따서 ‘觀海紀行’이라 임의로 이름을 붙인다.

식호당의 첫 번째 관해기행은 개항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왜관에 들어가 지은 시에 이르기를 “바닷가도 또한 우리 임금의 땅이거늘, 나무를 베어내고 도랑을 파고 제멋대로 하구나 [海隅亦是吾王土 斫樹浚溝任自爲]”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는 개항 직후 부산항 주변의 경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동래읍성에 올라 지은 시에는 “포문을 벌여 놓고 일천 군사 조용한데, 성벽이 십리에 걸쳐 두루 돌렸네[砲門羅列千軍靜 城堞周遭十里廻]”라고 하면서, 또한 “정씨의 경륜은 누가 다시 계속하리. 짧은 지팡이 지는 해에 일부러 배회하네[鄭氏經綸疇復續 短筇斜日故徘徊]”라고 하였다. 鄭氏는 앞서 개항 직전 동래부사로서 동래성의 방비를 강화하였던 鄭顯德(1812-1882)을 가리킨다. 개화파가 집권하였던 이 무렵 정현덕은 관직에서 쫓겨나서 함경도의 유배지에 있었는데, 식호당은 개항이 되면서 국경관문의 방비가 허술해진 것을 개탄한 것이다.

## 6. 西扉 崔宇淳의 「東遊錄」

西扉 崔宇淳(1832-1911)은 경상남도 고성 의 鶴山里에 세거한 全州崔氏로 자는 舜九이며, 호를 晴沙라고 하였다. 병신년(1896) 정월 안의의 선비 盧應奎가 義兵을 일으켰을 때 李鎭默과 함께

고성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가 병으로 인하여 돌아왔고, 경술년 국치 이후 스스로 호를 西扉子라 하고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앉지 않았다. 신해년 3월 일본인들이 이른바 은사금의 수령을 강요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거부하였다.

서비는 병신년 의병이 와해된 뒤에 나라를 걱정하여 항상 이르기를 “저들이 힘세다고 하는 것은 오직 기체가 낮기 때문일 뿐이다. 우리는 불리한 것으로 서로 겨루니, 저들의 병기를 가지고 서로 대적해야 한다. 뜻이 있는 자는 마땅히 저들의 도구를 목격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sup>4)</sup>고 하면서, 기해년(1899) 4월 가까운 항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마산을 거쳐 부산항까지 유람하였다. 그는 4월 8일 고향인 학산리를 출발하여 29일동안 700여리를 돌아왔는데, 그 여행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鶴山里 — 고성 향교 — 唐項浦 — 竹谷 — 鎮海鄉校 — 東田嶺 — 月影臺 — 鶴南齋 — 馬山浦 漕倉 — 鳳巖津 — 安民嶺 — 熊川 德川 — 素沙 — 石花峙 — 金海 龍南 — 花木里 — 金海 崇善殿, 涵虛亭, 燕子樓 — 招仙臺 — 立巖津 — 平康津 — 南昌津 — 龜浦 — 德浦 — 九德峙 — 富民村 — 倭館 — 影島 — 西館 — 兵隊廳 — 東館 — 洋館 — 清館 — 草梁 舊館 — 釜山 — 東萊府 靖遠樓 — 溫泉 — 梵魚寺 — 梁山 雙碧樓 — 黃山驛 — 通度寺 — 蘇台洞 — 勿禁津 — 金海 上東 — 김해 中北 — 自如驛 — 昌原府 客館 — 馬山浦 — 龜山 — 竹谷 — 新川 — 新化洞 — 甘峙 — 鶴山里

4) 崔宇淳, 西扉文集 권4 부록 崔正模 撰 家狀: 常曰 彼之所雄 惟機械之勝耳. 我但以短相角 所謂以其兵與敵也. 有志者 當擊其具 心解其理 以致其用耳.

최우순의 「東遊錄」은 1,709자의 산문이다. 『西扉文集』에는 동유기행 도중에 지은 시로 金陵涵虛亭, 招仙臺, 萊州弔宋泉谷, 梵魚寺, 安燕旌閭 등 5수의 시가 실려 있다. 다음은 그가 서관을 관람한 기록의 일부이다.

한낮이 되어 西館 북쪽으로 담을 따라 반 리를 못가서 문이 있는데 좌우에 탑이 있고 ‘奉獻’이라 새겨 놓았다. 조금 들어가자 한 장원이 있는데 화려한 기교를 다 부려놓았다. 神祠라고 한다. 조금 남쪽에 한 莊園에서는 왜인 아이 수백 명이 마침 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조금 서편의 큰 장원 문 밖에 한 병정이 칼을 차고 지키는데 猛犬이 사람을 보고 짖으며 물려고 하였다. 兵隊廳이라고 한다. 앞서의 점포로 되돌아와서 다시 黃生을 향도로 하여 아까 지난 곳에 이르니, 왜인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서 있다가 나의 의복을 보고는 존경하는 뜻을 보이더니, 나를 맞이하여 그 장원으로 들어가서 꽃을 구경하게 하고는, 종이 두 장을 꺼내면서 “존함을 적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각기 5언시를 적어 주었다. 그 또한 감사의 예를 표하고는,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浴桶과 쌀을 찧는 여러 輪法 및 隊伍의 연습과 僧堂과 佛障을 보여주었다. 돌아 나오자 패를 적어 주는데 곧 丸島周太郎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됨이 순후하고 조심스러워 간사한 태도가 없이 자못 어른을 모시는 예를 알았다.

서비의 「東遊錄」에는 개항 이후 달라진 일본인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었던 시기의 부산항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마산항의 상점이 이미 일본인에 의하여 강탈되고 있었고, 고성외의 당항포에서 換錢을 하고 부산의 왜관에 와서 돈을 찾은 것으로 보면 換

錢 업무의 금융시장도 이미 일본인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게다가 온천에 있었던 두 개의 욕탕도 그 중 하나는 일인들이 점거하여 새로 단장하고 있었고, 구덕 고개에 이미 상수도 용의 저수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부산의 왜관에는 일본인 수비대가 들어서 있는데다 수 백 명의 일본인 아동이 축구를 할 정도로 수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증언은, 이 시대 부산의 사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 7. 蓮溪 朴時燦의 「南遊錄」

蓮溪 朴時燦(1842-1905)은 경상북도 盈德의 德溪里에 세거한 밀양박씨로 자는 子中이다. 그는 어려서 常五齋 安東錫에게 수학하고, 자라서는 晚寤 申晉運에게 나아가 학문을 물었다. 그는 평소 여행을 좋아하여 「遊周王山錄」, 「遊鷄龍山錄」, 「遊伽倻山錄」 등의 遊記를 남겼다.

南遊錄은 박시찬의 나이 56세 때인 정유년(1897) 8월의 부산 동래 지방 여행의 과정을 기록한 약 1,800여 자의 旅行記이다. 「남유록」에 기록된 그의 여행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盈德 周坊村 — 長沙 — 清河邑 — 경주 杞谷, 瞻星臺, 半月城 — 鹿洞 — 울산 靑松里 — 石川亭 — 동래 溫井 — 東萊邑 — 倭館, 監理署 — 동래읍 — 釜谷洞 — 梵魚寺 — 양산 內院庵 — 化山里 — 石穴浦 — 鼠田 — 新基 — 밀양 慕先亭 — 밀양 鈿浦, 校洞 — 嶺南樓 — 청도 明岱 — 永川邑 — 笠巖 — 五舍村 — 泥峴 — 雪嶺 — 到家

박시찬의 「남유록」은 “동래부는 남방 고을 중에 雄鎮이다. 인

물이 변화하고 산천의 明麗함이 동방에 으뜸이다. 일찍부터 항상 가보기를 원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정유년 8월에 이웃의 젊은이 金龜煥과 함께 행장을 꾸리고 출발하였다.”는 구절로 시작한다. 그는 9월 17일 동래에 도착하여 5일 동안 유람하다가 다시 양산과 밀양을 거쳐 귀향하였다. 다음은 부산 왜관을 유람한 기록의 일부이다.

19일 장차 倭館을 향하는데, 釜山에서 監理營까지 회칠한 담장과 수를 놓은 듯한 대문이 늘어서서 마치 仙境인 듯하였다. 동서 두 왜관은 서로 거리가 10여 리인데, 겹겹으로 누각을 세우고 색색의 상품을 진열한 상점마다 능라 비단과 진귀한 물건들이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여 이루 형상할 수가 없었다. 또 火輪舂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지른 나무가 움직이면서 수 백 개의 절구공이가 저절로 방아를 찧었다. 반나절을 다니며 구경하다가 監理營 밖에서 유숙하였다.

남시찬은 「남유록」의 여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10수의 시를 남겼다. 그 중 다음은 부산항에서 바라본 절영도를 읊은 시이다.

東南海曲盡盤回  
平地起峰兀一臺  
島影旂旄壘上列  
波光鏡面匣中開  
重重畫閣奇花爛  
汎汎風檣落葉來  
最是釜山要守處

동남쪽 바다 구비 모조리 돌아드니  
평지에 일어난 봉우리 대 하나 우뚝하다.  
섬 그림자는 깃발처럼 보루 위에 늘어서고  
물결 빛은 상자 속의 거울처럼 열렸네.  
겹겹의 그림 누각에 기이한 화초 찬란하고  
동실동실 배들은 낙엽처럼 떠 있는데  
안스럽다 부산이라 수비의 요충지에

堅城何故半生苔      견고한 성이 어찌하여 반쯤 이끼가 생겼는지.

연계의 남유록은 경상북도 영덕에서 경주와 울산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여행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연계의 여행은 서비의 동유록과 마찬가지로 개항 이후 20여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항 이후 달라진 부산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대에는 監理署에서 왜관까지 즐비하게 늘어선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서 그 상점에 진열된 각종의 상품들이 중요한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 Ⅲ. 소 결

遊記는 여행자 내지 유람객의 기록이다. 여행자 내지 유람객이 여행 내지 유람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여행 목적과 일정과 경로가 있다. 조선왕조시대에 적지 않은 유람객이 부산 동래 지역을 유람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산 동래 지역이 조선왕조시대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유람지의 하나로 손꼽혔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시대에 작성된 많은 수의 遊記 가운데 대부분이 名山大刹을 순방하는 山水 遊記이다. 또 平壤이나 松都, 東都 등 역사고적의 관람을 위한 여행 기록이나, 당대의 유명한 학자나 서원을 탐방하기 위한 유기도 더러 있지만, 서울과 이들 도시를 제외하고 특별히 유람의 장소로 지목된 고을은 그다지 흔치 않다. 동래 부산은 조선시대 국방과 외교의 중요한 보루로서 동남쪽 바닷가에 형성된 가장 큰 도시이자, 조선왕조사회에서 남방의 외국 문물과 접촉하는 곳으로 유일하게 열려 있었던 곳이기 때문

에, 유람객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가졌고, 그것은 다양한 기행 시문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동래 부산을 대상으로 하는 기행 시문은 부산에 왜관이 설치된 이후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하여, 개항이 되면서 급격하게 확산된다. 폐쇄되었던 국경이 개방되면서 부산 동래 지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내륙에서 오는 유람객의 시선은 임진왜란과 개항 및 조선의 망국을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변화한다. 이런 상황은 여기에 소개한 紀行 시문 이외에 단편적인 기록을 남긴 다른 수많은 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편으로 미룬다.

자료1) 柳亭 崔應泗의 「蓬萊紀行」 [柳亭逸集<sup>5)</sup> 卷上]

余嘗聞海上蓬萊 卽仙館也. 恨不有緣 而莫之遂. 府伯黃博 適吾室人李氏內從兄弟 要我甚緊. 己巳初春 與妻兄李思沃甫 命尺僕 出蹇駒臺 轡 僅到彌勒院秣馬 而先行馳入傅山媒媾白憲之家 則白君適駕於舍伯之山亭 有日矣. 甥君以昭 開門甚款. 數語畢 仍發. 朴谷謁嫂氏 因辭促起 追李兄於牟梁傳舍. 將欲進 而日西矣. 躊躇之際 李尙文 待我閭左 而引路. 蓋四五里 同路之勤意也. 翼日 微雨霏霏 乍晴乍冥 沾到魯谷 黑雲蔽天 行李間關. 忙抵李兄之家 數間葺屋 夕飯多情. 又明 雪花飄風 半日開霽. 至汝補驛 午站. 馳向通度寺 洞口清川石壁 盡古今搢紳 左右林樾 翳日十里. 直入不二門 舍於金堂. 學澄上人 合掌禮畢 次第白足來待. 彼禪俗之蹲節 皆法靈山古會耶? 第三日 驅馳憔悴 暮抵萊府館於尹金之家 通於鈴閣. 厥明 臺隸傳喝而請入. 至息波亭下 有一少掾 問安引道. 及到板扉 又記室迎之. 都督下禮之風 尙矣. 同李兄 相見於政閣 主伯顛倒赤衷 說話及家人鄉居之家族 寒暄津津也. 檠戟肅嚴 呵卒邏前 刺使之府 切非儒子所能及. 然雲際日域 海上戍關 足爲志士之快眼 蓬山消息 無人問處. 海上迂怪之說 眞實際也. 日與衙郎黃廷澤 主伯妻從兄李法涉兄弟 絲竹琴妓 海甲江鱗 足可暢敘也. 偕我游觀者 黃慶彥 朱億祥 李思沃 宋億祥. 鶴巢臺 梵魚寺 溫井之浴 草梁之戍 多大浦絕影島 萬千氣象 行憲意劇 不可以盡記.

자료2) 棄翁 孫海永과 竹牖 孫南翼의 「南征卽事」 [棄齋稿<sup>6)</sup>]

5) 『柳亭逸集』은 목판본 1책인데, 필자 소장본을 底本으로 하였다.

6) 『棄齋稿』 零本 1책은 필자 소장의 필사본이다. 이 책은 棄翁 孫海永의 詩稿인데, 表題에는 글자가 마멸된 채 ‘稿’ 한 글자만 관독할 수 있는데, 책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본디 표제가 ‘棄齋稿’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렇게 명명한다.

余病伏山齋 昏昏倦睡 尤與筆硯疎。時有族從竹牖 袖一軸瓊琚投我 是戊戌八月南征卽事也。圭復再三 湖海風烟 香於牙頰。不佞亦以聞齋之僧 敢生臥遊之意 強步高韻 有若睹者之摘埴 便同醜女之效顰 癡僮俚語 覆瓿亦榮。

### 敬次發行韻

芒鞋竹杖供漁竿 來自東溟大眼看 海月江楓吟弄地 淋漓醉墨灑無乾。  
竹牖元韻：遲遲日影上三竿 約伴東亭坐久看 入峽始知霜信重 滿田秋色葉聲乾。

### 過蓮花洞諸石堂

君子何人洞號開 濂溪以後始聞來 玄龜曳尾藏靈地 丹鳳低翔抱卵臺  
採曲村娥牽紫蒂 留鞍仙客掃蒼苔 山西出將山東相 台宿分明下照魁。  
竹牖元韻：靈公鼉鬪劈崖開 磅礴千年走石來 有意藏頭龜伏地 晚飛竦  
翮鳳蹲臺 神龍吐霧渾丹氣 仙馬留鞍忽碧苔 如使此山移濟北 鍾生黃面  
摠奇魁。

### 到鵲院

玉碎荊山棲密州 參差石勢赴江流 詩耽麗景生金浦 夢伴清天疎雨鷗  
滿眼蘆花皆我興 數聲漁笛爲誰留 如逢堯舜心照皞 剩傳江湖月仲秋。  
竹牖元韻：群山綰縠嶺東洲 曳出長江入海流 千古休徵金化鶴 一生清  
夢水眠鷗 當墟女笑殘盃瀉 捲釣人還小舫留 斜日楓林無限景 付與征橐  
饒新秋。

### 宿院洞

送客清溪問酒家 龍湖水上月何多 嘶霜旅雁聲添畫 泛浦新荷葉吐花  
不耐滄浪豪宕興 無妨遊子唱酬歌 楓林玉露曲江路 明日奇觀又若何。

竹牖元韻: 夜過龍湖泊酒歌 一秋明月比江多 凌滄隻艇懸松火 泛湖輕  
霜亞荻花 肩纜昇丁彳亍步 手竿漁子短長歌 無心白鷺雙雙者 細踏魚頭  
底欲何.

### 過臨鏡臺

爲誰削出金芙蓉 鬢黛如臨玉女峰 眉畫三叉西坼杭 靚粧七點北來龍  
雲開巫峽荒臺夢 風送姑蘇半夜鍾 遙望昌城月影屹 崔仙先我關苔封.

竹牖元韻: 嵌巖削出玉芙蓉 擬渡長江崿嶠峰 近市檠槎無虎豹 吸溟渦  
滙老魚龍 光凝半面臨鏡臺 響落遙天隔葉鍾 誰護千年藏是氣 石苔經雨  
耐秋封.

### 登黃山

霜飛葉落是黃山 多竹如椽又翟竿 地敏蒲蘆宜置郵 亭開哦咏可偷閒  
梅傳驛路輕塵外 松老藍田古縣間 非直居人心秉塞 三千駭驩且攻看.

竹牖元韻: 蒼石面坼崱黃山 脩竹駢田簇萬竿 地撲閭開漁戶密 日哦亭  
邃馬曹閒 殘梅借驛春歸後 疎蕩聯丘月出間 此一南來大都會 夕陽街上  
倚筇看.

### 宿梵魚寺

騎獅禪自達摩城 椽木何時渡海清 孟鉢恢恢藏老虎 袈裟泛泛濟靈生  
萬枝松下引閒步 二上臺邊汲水聲 旗動龍蛇牢吼筏 僧言牙纛察巡行.

竹牖元韻: 山峯蓬萊接芄城 羽仙來御海氛清 千塵塔老迷前刹 萬法輪  
回濟衆生 石舫沒苔沈古壑 蒲牢待輻吼雄聲 禪廳庠豁仍弘敞 坐來容得  
萬人行.

竹牖元韻: 金魚何日渡溟來 釋氏琳宮大鋪開 砰撞春雄雷水響 雕劖鸞  
鳳般侄才 萬枝松暗千峰鎖 二上臺環六道巍 樓畔通衢夷且濶 僧言牙纛  
夕陽廻.

### 到倭關譏察

華夷兩徼設關譏 慢察殊常盡細微 奇貨東南交易時 別區來往犬羊衣  
九山積翠多雲霧 百越餘音辨是非 萬世邊方休警意 龍蛇變後置信歸。

竹牖元韻：交關當日設機譏 容置信人詞察微 西入王孫藏楚服 東來力士贈秦衣 漢倭異學推音讀 海陸殊風卞是非 深恨龍蛇千古事 如何別類禁無歸。

### 沐溫泉

蓬萊城外有名泉 下末流從到上前 却愧湧騰延汚俗 還羞瀝液遠飛仙  
靈源自是神工發 異穴元非禹斧穿 士女分湯爭沐浴 丁寧云道得康年。

除是人間別有泉 石蓮之下石梁前 轆轤長綆唾神女 瀝液真源嗽老仙  
湓浴已爲室各辨 渾淪先使穴分穿 瀛洲不遠蓬壺邇 東土人人可享年。

竹牖元韻：脈通金井化溫泉 燻亂如臨炳火前 咸湊四方蘇病客 纔傾一勺駐癯仙 室嫌逼浴間分隔 流別同源穴各穿 如使移封湯沐邑 玉樓高處可長年。

### 登萊州朝墩樓

引越控蠻天限限 扶桑東畔眼初開 鶴巢臺下光纔到 靖遠樓前輪漸堆  
興入滄溟先得月 詩成檀板且含盃 奚囊滿載黃綿襖 萬里風烟一杖回。

竹牖元韻：雄鎮南藩枕海隈 橫中飛降鶴巢臺 松間吐白雉墉壯 雲際含青馬島開 仙吏蓬山來有月 忠臣壇碣去留盃 徘徊永日凝川客 靖遠樓前捲杖迴。

### 拜鄭墓

東面淑氣赴華池 鍾出誰家中葉枝 四岳周回龍虎勢 三峰羅列鳳凰儀  
前朝將相休徵發 當世公卿餘蔭宜 短碣特題戶長墓 春秋筆法使人知。

竹牖元韻：東方吉宿聚華池 分送金山一脈枝 環四面來龍抱勢 峪三峰列鳳翔儀 地如有理休應發 天不無甚心福亦宜 長護千年初祖墓 戶長碑號世皆知.

金元柱：一朵芙蓉出小池 千秋子葉又孫枝 指山欲問金魚脈 倚碣如看雲虎儀 始信降精天理必 曾緣種德地靈宜 居僧怪我徘徊意 笑道尋常客亦知.

### 登釜山永嘉臺

誰築高臺號永嘉 龍蛇餘燹此溟涯 寒潮動砌驕驕馬 明月生欄歷歷沙 更上一層千里近 迥臨百尺半天賒 風光大闢銀河界 俯瞰張仙入海槎.

竹牖元韻：高臺飛出巨溟涯 天地浮浮四望賒 動砌潮生馳白馬 巡簷月印躍金沙 三遷有說桑田開 一採無緣藥草嘉 永日憑欄仍久坐 南來八月若乘槎.

金元柱：臺泛蓬瀛第一涯 憑虛可接海天賒 長風打檻瓢瓢葉 明月生欄歷歷沙 盡日登臨仙庶遇 有時嘯咏客其嘉 景光大闢銀河界 高坐層鱗替着槎.

### 感鄭撥碑

臣節堂堂王事諫 史官先著雲臺間 平生大義取熊掌 卽地貞忠輕泰山 素是天時猶未及 元非軍務不曾閒 我公玄裔今安在 餘蔭分明上鷺班.

竹牖元韻：天邊將軍值世艱 黑衣朱鉞指揮閒 餘魂萬死忠干日 強弩一號氣撼山 蔽海鯨鯢能使恟 滿城風雨坐如閒 多分慷慨千秋節 無愧吾南烈士班.

### 望絕影島

芙蓉削出玉臺中 吞海涵虛混太空 沙是還非雲外屹 有形無跡日邊崇 端倪尚窄東南界 光彩難容牛斗宮 盤據滄洲何地映 金吾吹送怒清風.

竹牖元韻：扶輿斗沒海之中 鍾起三峯撐碧空 潮馬蒼茫鞭去截 靈鰲鼉  
鳳戴來崇 峻嶒氣壓魚龍窟 縹緲光通星漢宮 咫尺蓬萊今可到 徐生迂怪  
解其風。

### 觀海

天地一拳團四流 騷人肚裡大春秋 九岸城池環蟻垤 萬國第杭泛芥舟  
能吞江漢朝宗路 任揮日月馭鞭頭 恢容物產多奇觀 鰕蟹龍鼉又蜃樓。

竹牖元韻：雄濤巨渤射天流 上下澄清一會秋 不測能吞江漢窟 無涯如  
芥蠓鱸舟 西遊漢母悲青鳥 南泛秦童老白頭 強恨千年腥穢事 一嘯長倚  
息波樓。

### 自釜山歸路有感

海藻山榛共染衣 南征餘橐又忘歸 何多七點山頭月 未了三叉江上暉  
西舍黃梁炊火起 東倉疎雨和烟霏 流雲尙學銀河水 幾日更裁織錦機。

竹牖元韻：蓬萊山色上寒衣 領略雲烟沂海歸 薄暮漁舟皆畫境 清秋客  
髮半霜輝 無錢可辦三盃醉 有旅難堪一雨霏 行到南倉經宿夜 如何鷗夢  
共忘機。

### 過周禮望海西

問禮當年先點頭 遙看海水積沙流 美哉東洛如襟帶 遯矣西京誰去留  
無限清詩鳴楚響 何多明月見吳洲 南遊壯觀於斯盡 故着浮槎替入舟。

竹牖元韻：蓬山西赴一回頭 洛水中分入海流 天末岐城浮欲去 雲中茹  
島有誰留 三叉江上先生瓦 七點臺前帝子洲 如帶鳴湖橫十里 扶疎樹影  
替登舟。

### 題沒雲臺

多鎮南藩擅海隈 將軍之故知名臺 如臨許遠英靈質 宛在秀夫赤日開

寂寞魚龍猶吼怒 參差碑碣獨崔嵬 祇今遺恨吞吳失 嗚咽寒波洶湧來.

竹牖元韻: 鯨雨霏霏浥海隈 天黝不見沒雲臺 轟蕩魚龍餘怒在 千秋嗚咽烈風來.

歸泊桐院吟

蓬萊秀色爽胸襟 却恨霜華鬢髮侵 詩料何多湖海畔 朋儕無遠樹雲陰 風烟沿路難收拾 鷗鷺同飛底性心 老去清遊甚事樂 廣陵山水曲中音.

竹牖元韻: 晚板芳菲入爽襟 蓬窓一揚曙色侵 乘朝暖霧濃成靄 泛浦齊花積送陰 百里通溟潮有信 一生依水鷺無心 回看世路悲秋賦 何似滄江扣柁音.

過倭城店有感

黃河日瀉海東青 誰教獠兒謾築城 翼翼春翬荷鍤堞 離離芳草壓雲場 四郊多擁辱鄉土 一面將頽悲杞梁 回憶龍蛇腥穢事 徒勞渠輩衆甚成.

竹牖元韻: 腥塵穢氣洗難清 千古流名一夜城 宿莽荒臺雲黑處 大郊長浦血流場 鯨鯢射毒衝藩衛 猿鶴成邱入陸梁 却恨青東無壯士 疇如蠻類衆心成.

자료3) 晦亭 閔在南의 「東遊錄」 [晦亭集]7)

夫觀物者 物而已 則可謂善觀乎. 必也心目俱到 然後可以蓄吾之所有也. 經云致知在格物 傳云覽物興思 古人豈欺余哉. 吾夫子嘗轍環天下 其心固有所在 而所過山川 卽眼前物也. 聘大觀於登泰 發浩歎於臨河 又言仁者智

7) 『晦亭集』은 9권 5책의 목활자본이다. 이 책의 본문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文泉閣의 남명학고문헌시스템에 텍스트로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구두를 떼고 가공하였다.

者之樂 則聖人亦不曾惘然於山水矣。厚重者山 而峯巒岳麓 列爲方鎮 周流者水 而江湖川澤 橫作地紀 究其本 則崑崙也 黃河也 語其類 則丘垤也行潦也。低以爲平地 會以爲滄海 其象坎艮 其理動靜。然所恨者 凡天下許多山川 非足跡所可遍覽也。或曰舉一方 天下可知 奚必每每遊觀乎。此則大體說也 非纖悉也。均是山也 而明堂於泰 雲臺於華 石室於衡 寶符於恒 其蹟各不同也。俱是水也 而九江大龜 三淮蠙珠 洛之出書 漢之沈碑 其事亦各有異 其餘劍閣太行瞿塘灩澦之險 會稽天台雲夢洞庭之美 皆風雨之所興 魚龍之所伏。然奇形異跡 出沒變化 可驚可愕者 可喜可悲者 不可彈記 則豈可謂舉一方 而知天下乎。余靜居鑑湖之西 茅山之陽 未知此賀道士之鄉歟 陶隱士之居歟。逍遙自適 有時積鬱 則飄然與一驢一奚 彷徨於域中 烏得免井觀耶。歲菊月望 東遊海上 路過柳學士元庸家 將別 學士曰 吾夙抱山海之志 而送子先著 且憤且羨。余笑曰 山海吾遊散家物也 何關於學士 古以學士之選 擬之登瀛洲 然安敢望眞瀛洲乎。吾行方向蓬萊 若遇安期生 則必言柳學士若來 逆風回船 使不到靈境也。相與呵呵而分手。行到鼎津 船人指點東畔曰 此有漁溪趙先生墓。先生端廟時人風節 與梅月堂相高。余慕其爲人 登拜墓所。至馬山浦 海賈陸商 戰艦漕船 雜還於上下 浦口亦可觀也。訪所謂月影臺 羅代崔學士孤雲所遊也。傍有文昌故郡 前有浮鶴山 山下金猪島 世傳以爲學士之父爲文昌守時有異事云。此說甚誕 非儒者所可傳信也。過昌原府 至駕洛故都 山川開豁明媚 依然若尚有佳氣。熊川之可德島 爲右虎 東萊之沒雲臺 爲左龍 其間地形 長博可五六十里 田畝人家外 皆蘆田鹽場 前無所遮 惟見海色浮天 儘是快闊境界。但欠藏抱氣勢 所謂盆城臺涵虛亭燕子樓龜旨峯 皆其舊跡。城西北門外金許兩陵 與丘壠同體 碑陰書首露王 開國於漢建武十八年 有子十一人 二人賜姓許從母后 而今狐峴許其裔也。陵前有會老堂 嘗觀濯纓子作其記板刻猶掛壁上 享國四百餘年 歷十世 降新羅國除 拊古興嘆亦一滄桑界也。自竹島 方向明湖 臨風舉帆 隱然想晉之王濬 舟過三山 直指建業時氣像。暮泊津頭 鷗鷺鳧雁之屬 飛鳴於蘆荻之岸 遠近村獠上下津客 喧噪於煙雲之中 欣然如復見西湖之錢塘。俄見海上點點漁火隱隱而來 鼓舷而歌漁父辭 漸近南岸 眞畫不得之光

景也. 蓋明湖一島 在故都南五十里 江海之交 周四十里 遍是鹽田魚莊 民之資生以此 北通鷄林 洛江西接馬山統營 商賈之往來 貨物之交易 甲於江南 人言大明輿誌末 朝鮮國南方有蘆花連陸十里地 一日消生百萬金者 卽此地云. 東渡長林浦 舟中回望古都形勝 則眞王者居也. 山則智異一脈西來而南盡 水則鼎津合流洛江衆流北折而東廻 會于明湖 入于海 如人橫金帶對玉盤而端坐 始覺絕勝於昨日所見 國號駕洛 良有以也. 至沒雲臺海上 壯觀都在於此. 東萊金井山一支 南走五十里 欲斷復連 乍屈還聳 直欲渡海而却立於雲中 累日所見於鞍馬舟楫之上者 盡會膝下熊川之所謂天子峯張嶺山 俗傳何據可怪 可怪惟見漁舶商帆 出沒往來於遠近 南望黑山橫臥於煙霧之中 認是對馬島也. 坐見異域甚不易得之事. 下有龍湫石 如束劍簇立於海口 豁豁凸凹 風蕩水激 則怒吼於虛中 踴躍於石間 色透雪花 響疑鍾磬 氣像陰慘 不可褻玩. 上有忠臣鄭運碑閣 在昔壬亂時 立節於此地故也. 遲回周覽 精爽飛越 回至多大浦 浦東夜望臺 眼界之通暢 雖遜於沒雲 物色之端妙 亦一別區. 晝觀不如夜 故傳此名云. 方向釜山 望倭關草梁等地 而指點焉. 忽遇七倭人服裝 物表初見甚怪 一倭呼余以老人曰 年幾何 頗解漢音 不解者以筆話相通 乃知其姓名爲平富政也. 其言曰 吾國有密陽朴 善山金姓人 其先皆貴國人云云. 俄有小倭持一物 長可尺餘 從頭拔心舉以附目渠所謂千里鏡也. 推而攘余曰 老人且觀之. 附於一目 則眩曜無見 良久乃定 十里間菜女之戴筐 農夫之負禾 昭在鏡前 眞奇寶也. 昨見異域山川 自謂奇觀 今與異國人物相對談笑 且觀寶鏡 其奇又如何也. 多大釜山爲節制營 東萊卽都護府 皆古戰場忠臣義士貞女孝子之蹟 在在無數. 蓋地邊倭 國家之關防甚嚴 風氣則不甚異於大陸也. 至溫井 水湯不可探也. 嘗聞水之發源處 有石硫黃 則水必溫 或云神人所煖 療人疾病. 朱子詩曰 誰燃丹黃焰 爨此玉池水者 卽所謂溫泉. 然物或有乖常之理 不必強究. 行至梵魚寺 寺在金井山城之北 楓菊松篁遍山盡景 僧言新羅興德王所創甚古也. 自梁山縣過黃山驛 夾洛江而溯行 卽故都之後藏也. 江左江右之山川氣勢 蹲蹲焉 盡向金海 如無數軍兵 擁將壇而環立 始驗昨日所見之不誣矣. 大抵洛江一帶 南國之紀也. 魚鹽之通商 盡由此江 江鮮海錯 商女之筐筥也 荻柴蘆席 津

客之負載也。往往巖上數尺釣竿 點點中流 一葉漁舟 又有大舶數三艘 滿載累百鹽石 或搖櫓於舷頭 或曳纜於岸側 沙鳥驚人而飛去 空汀行客招舟而爭集津頭 無限光景 宛似吳會越南。有人戴蘆笠而至余請買之 其人曰驢背老人 買此何用。余曰 吾本鑑湖漁者 今行遍遊海上 無一點表識之物 以此歸掛壁上 將用於釣魚時也。其人默而視之 良久許焉 使小奚著而驅驢 余騎而筇之 店兒街老 爭指拍手。魁梧一客 前而問曰 人皆騎則騎之 步則筇之 老人之騎且筇奚哉。余曰 驢小力弱 恐其不勝重任也。客曰 倒騎驢而看山 乘蹇驢而訪梅 傳為騷家風致 然騎而筇 徒為見者之該笑立異 為高君子不為也。余謝曰 子欲以我為君子耶。余性無拘 往往不免為狂態。今聞子言 與人為善之意切矣。遂以筇與之。客大笑曰 此誠不吝改過之道也。然且觀其使奴著笠而驅驢 老人之病 實為難醫。還其筇而更語曰 筇是扶老物 不關於少年 相視含悵而別。自龍塘至三浪 亦一可賞 閭閻撲地 江市通陸 舸艦迷津 海運通京 南連金昌 北接清密 蕩子豪少之往來於東萊者 問津必於是 江上絕頂 有五友亭 即吾宗先閔勛齋九齡五兄弟所同遊也。傍有鄉祠 共享五人 五人即江湖金先生之外孫 與畢齋同學 為刺史任虎臣所薦 終不就辟 風節可尚。因謁廟 油然發百代之感慕 此固秉彝耶。北望嶺南樓 洞府通四十里 煙雲迷莊於其中 及至樓下 有栗林 周可十里 黃葉繽紛 穿林涉江 入府城東 上高墩 墩上即樓之所在 地形高爽 故望之若飛鳥之在空。時繡衣任應準在樓東小冊室 敲扑喧囂 嗔喝截嚴 回從樓西小門入周回一覽 無限形勝 已悉於板上諸作。然為俗客所遏 山巾野服 未能高唱寫興 惟碎前人是可憤也。遂領略景物 悵然下樓 樓東有舞鳳菴 數架蘭若 隱藪中掛側壁 眼底賞物 與南樓相上下 而所棲者僧 故尤為奇勝也。此非吾心之因物有遷乎。亦可警省處也。西至堤大洞 村前有碑閣 閣傍有杏壇 居人曰此畢齋舊居也。墓在村後 故立神道碑於此 而杏樹則其童子時所種云。余遂登拜墓前 忽念濯纓子金季雲 以先生所著弔義帝文入史草 為昏朝群奸之所構誣 禍及泉壤 慘見肆市 至今晚生哽咽嗟惜。尤菴老先生嘗言 春秋之法微其辭事於定哀之際者 聖人之達權大用 又曰秉史筆者 惟直是職 抑此見歟。恨不得質疑於同時也。仍西望靈鷲山 渡朴津 至新蕃 此亦龍蛇戰場 郭將軍再據據比禦寇 江右列

郡 賴以得全云. 倉於此 驛於此 市於此 人物之都會 亦可賞也. 所歷山川之勝 風土之尙 事蹟之記 不過十舉其一二 攝其大而已. 此可謂善觀乎否. 前輩云 論性不論氣不備 論氣不論性不明 吾於山水亦云.

### 登燕子樓

燕子飛樓關海門 舊時堂榭是誰村 逢人只說滄桑界 龜旨峯前細草痕.

### 竹島舉帆直指明湖

九月高風倚海天 此身忘却坐孤船 飄然一去將何處 未到蓬萊已是仙.

### 宿多大浦

清雷閣抱夜望山 節制衙門最別寰 雲末長天紅旭出 眼前平地白浪環 居人物貨通蠻市 行處樓臺鎖客關 南塵廓掃西烽宿 將壇笳鼓幾時間.

### 登沒雲臺

鰲頭山出一支蓬 南走洪溟半沒空 世界迷莊徒積水 胸襟快活又長風 登臨却似乘飛艦 指點遙疑臥暮虹 上有旌忠元帥閣 尙看朝日照心紅.

### 過釜山浦

土風今海岱 人物小京華 到處忠碑蹟 龍蛇過劫多.

### 路逢馬島日人

醜類亦人類 相逢却怪奇 同文傳舌筆 異制著身絲 忽說龍蛇恥 回看犬豕疑 問年通姓語 太半漢音知.

### 宿溫泉

地出溫泉濟病身 蓬萊仙藥始知真 石黃潤液流金井 安得成丹遍壽民.

過梵魚寺

古寺丹青葉已秋 海山深處隱高樓 呼僧暫問梵魚解 金井游鱗活法流.

謁三浪祠閔勛齋九疇五兄弟書院

三江亭畔五賢祠 廟貌愀然孝悌思 夙溯家庭知有受 至今人誦鵲鶴詞.

자료4) 梅屋 朴致晦의 「南遊紀行」 [梅屋先生文集<sup>8)</sup> 卷1]

躅萬德嶺

飄飄庶幾望蓬萊 南徼將窮巨嶺開 百里龍蟠金井堞 千年雄壓霸家臺  
重溟月出眉稜冷 仙府雲深角響哀 前有奇觀更努力 饑人如遇好盃盤.

溫泉

水本陰寒惟哉溫 坎離玄象誰敢論 非貧非啞能醫世 侈奉宜乎若是尊.

六隅亭

平岡細鋪綠絲毫 場畔巉壙六隅高 白堊千巖邊將重 丹屏一幅化工勞  
碑崇萬廟蒼涼蹟 金活崔綃颯爽毛 想像前塵因墮淚 受降樓北倚詩豪.

永嘉臺次五沙李貞肅公鼎運板上韻

東洋一曲擬西湖 高士登臨擊玉壺 鵬籟長時雲際起 蠻烟如畫日邊孤

---

8) 『梅屋先生文集』은 3권 2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의 본문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  
구소 文泉閣의 남명학고문헌시스템에 모두 입력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를 근거  
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고서원문자료와 대조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충  
하여 넣고 구두를 떼었다. 그러나 관독할 수 없는 원문 일부는 부득이 □로 처  
리하였다.

于今聖德聲光暨 能使妖氛寂若無 滿榭芳聯模寫盡 如何因作半屏圖.

觀捕鯨

噉嘈商舶泊風涯 挽出穹魚大似家 斧伐刀割開巨肆 肢分鬻解積平沙  
周鱗果有千斤重 任餌非虛十牯多 寸斲猶能成一負 擔軍如蟻邑門過.

咏毛蛤俗號昂藏久

鬻如栗殼小如柑 筠簞蠻娘坐兩三 入手翻嫌形詭惡 當唇纔覺味甘鮮  
能知可食誰先採 只貴初看半是饑 鰕鱗鯨鵬歸息處 昂藏此物亦同涵.

贈釜山僉使申泰善

金壘門深駐小戎 平明閱武鼓三通 東史文衡推象老 南衙裘帶頌羊公  
蓬約相尋沙島白 葵忱應與海墩紅 鰕生敢有圖鵬志 前路奇觀借下風.

異樣船

穹崇畫舫耀滄波 越後琉球兼薩摩 捷舌侏儻同鳥獸 紺衫矮短若袈裟  
迎賓作敬羅泥塑 催米高呼立夜叉 三國儀形觀一席 平生奇翫此無加.

戲贈越後兩兒

寧馨兩箇玉 歌笑何琅琅 心憐不欲捨 要之岸舍房 使譯問姓名 又及所  
住鄉 團跪揖且斂 泫然色淒涼 云是越後人 其父稱大商 曾持巨萬貲 流  
賈海四方 適值風濤惡 臭載耽羅洋 去年八月日 雞 林又敗裝 間關到此  
灣 支饋不充腹 □□□□□ 所願唯喫糖 渠名是英吉 父啣卽大□ □□  
□□無 屈指十孃 小者書數行 大兒書□□ □□□力丸 是渠所乘檣  
驕駿兒本習 言訖□□□ □□強把袖 索筆又探囊 儼如飛鳥翮 □□□  
□□ □錢呵呵笑 瑤倩若鏗鏘 日暮潮勢急 □□□□□ 拜手恭辭退 翩  
然駕飛舡 戀缺如生□ □□□□滄.

降仙臺

隱約翳深小島頭 斷岡如畫水中流 □□□□□期臥 明月來時永朗秋  
徐福無端船上老 茂陵虛負海東遊 偏憐俗子牽塵債 篋紙年年有所求。

自牛巖泊絕影島

輕蓬高揭大荒東 冠袂僂僂化若鵬 萬里當前虛地角 一空無際但天風  
脩鱗掠纜心常凜 孤鳥衝雲眼益窮 望裡三山如夢近 妍妍晴入九華宮。

登絕影島眺望五六島

飄飄仙袂浥輕霞 飛拂重瀛一朵荷 萬八千年玄劫冷 東南西際白雲多  
巖巖列揖金盃將 裔裔雙翻羅袖娥 極目無垠塊坳外 杳然忘却夕陽斜。

牧馬場

平蕪細草綠如雲 無限遊蹄自結群 鬣老風霜剛似豕 頭無鉗絡走如鬻  
雙雙色別龍媒種 箇箇精通太乙分 云是監官糾攻處 巖然空閣掩柴門。

少憇海岸望萊館

十里平岡臥海灣 滿城篋檜鬱蒼寒 倉聖鮮新花百匝 簾櫳窈窕玉千間  
玄服遊時如狗戲 錦茵高處若仙閒 云何勝域腥緣重 鄒魯邦中獨也蠻。

過沒雲臺追懷鄭將軍運立謹崖壁有感

甌岳南趨遇海蹲 丹崖萬丈碧波喧 幽洲石動春容律 落日潮生慷慨魂  
天地中間唯積水 江山盡處又孤原 書生再拜荒碑字 搔首斜陽未敢言。

過三叉江望鳴島口號

江沙歸海自成洲 萬里潮頭葉若浮 一色溝塍晴雪晶 千家烟樹落暉愁  
蠻帆過戶輕輕影 蟻宮歸汀歷歷儔 恸颯如今違宿抱 于三十里每回頭。

海上逢立春

地柱南傾歲北催 飄然坐我沒雲臺 蠻童慣解魚麗曲 蠶女織傳橘釀盃  
一度閩浮鰲劫過 三陽消息牝宮來 無端浪走今年事 明日長風短棹回.

자료5) 式好堂 安彦繆의 「觀海紀行」 [式好堂集<sup>9)</sup> 卷上]

三浪津值雨[戊寅]

十載經營觀海程 同人携手作閒行 溪山宿約春禽喚 田野織歌採女聲  
僅到三郎當午飯 偶來微雨滿江城 不知何處金陵是 水鶴雙雙古渡鳴.

天晴渡津

落日亭亭雨乍休 長年先艤小漁舟 奇觀盡在繁華地 佳釀偏多江海頭  
晚景欲酬浮水鳥 片帆容易渡煙洲 緬思五友今安在 千古澄波咽不流.

至金陵

萬丈臺前四客遊 春風徙倚夕陽樓 歌筵蕩子爭搖扇 鏡裏佳娥巧櫛頭  
芳草西陵斜日沒 葫蘆遠浦旅人愁 詩朋賴有前期在 不借軍持下晚洲.

途中口占

去去危橋渡渡津 難於蜀道客愁新 平沙倒步乘風蟹 落日狂歌醉市人  
山氣北來留郡縣 海門南坼靜煙塵 江湖遠適無知己 一夜誰家屬此身.

宿鳴湖

門泊荆吳萬里船 參差島嶼是那邊 郊平水曲疑無路 燧飯蒸鹽忽有煙  
物態一區天接海 生涯萬頃雪耕田 佳娥嫵媚還堪笑 薄暮迎人下畫筵.

9) 『式好堂集』은 2권 1책의 석판본이다. 필자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宿長林趙友家

迢遞相逢大海濱 主家杯酒亂無巡 爲銷世慮耕殘雪 解惜離情願結隣  
絃誦山家多讀子 逍遙江國有遊人 堪憐後夜相思意 千里吳洲月色新。

野望臺

白袷飄飄野望臺 層巖水激浪花開 鼉鼉浴日鱗光射 龍蜃噓空雨色來  
元氣山川留大地 風流樓閣可三杯 丁寧此外多奇絕 故拄歸筇首復回。

登沒雲臺

沒雲臺下水偏深 惆悵登臨動客心 古廟殘碑春寂寂 層巖碧浪日陰陰  
三神山遠仙難見 萬里風來龍若吟 樂事哀情都不得 狂歌出郭古途尋。

入倭館

海隅亦是吾王土 斫樹浚溝任自爲 眞的壬辰條有定 無端丙子使相隨  
方言南海馱初見 制度深山僧九疑 文物東方一千載 人神糝雜自傷悲。

晚登東萊城

晚到蓬萊仙不見 園花堤柳爲誰開 砲門羅列千軍靜 城堞周遭十里廻  
風月好時留製作 江山勝處起樓臺 鄭氏經綸疇復續 短筇斜日故徘徊。

浴溫泉

近嗅薰香液汗生 才吞一器覺心平 洗時身若膩油滑 浴後衣如羽翼輕  
遠路天晴扶杖客 高樓日出賣糖聲 蓬萊自古多靈異 滌盡塵埃骨氣清。

宿梵魚寺

老檜高松不記年 暮鍾聲出白雲邊 眞身石塔添花雨 別味山廚煮茗煙  
淨界千秋僧亦老 殘燈半夜客無眠 諸天瓊月圓如舊 疎磬依依龍象筵。

還至院洞贈別金友之梁山

行盡江湖步欲休 渡頭無事畫維舟 平沙白石同携挈 芳草清陰共酌酬  
觀海風流豪邁地 落花時節別離愁 客中送客何須恨 第待明春續此遊.

春日與李竺南敏裕姜栗坡尙壤再遊萊海初到鵲院【庚寅】

樓下長江樓上山 來人去客遞相關 此樓設此固邊圉 肯使頑酋入此間.

暮抵新店

梁州重到客心新 況是東風二月春 流水高山多高調 落花芳草際良晨  
名區處處耽佳句 別味家家供細鱗 濁酒三杯豪氣發 長歌一曲劍生塵.

錦湖作

東風迢遞雨成泥 關柳新晴客共攜 景在眼前摸不得 幾人於此上頭題.

入梵魚寺

布襪青鞋石逕尋 林鴉啼罷日初陰 春鄰法界川猶壯 鍾落曇雲山更深  
花雨諸天多好觀 江山遊子懶歸心 此間耳目藏之去 不費吾儂一寸金.

行至蓬萊

客伴青春感舊秋 鷓鴣飛去鷺眠洲 乾坤南坼名區在 山水東來元氣浮  
見鶴回船林氏宅 穿魚換酒柳橋樓 堤筠園草渾依昔 悵悵歸來使我愁.

滯雨龜湖

天低風急碧波翻 水戍家家閉畫軒 龍氣腥腥多雨意 江光漠漠露雲根  
鷗拳一足能成夢 龜縮千年自不言 岸柳汀花君莫說 歸心如矢惱詩魂.

자료6) 西扉 崔宇淳의 「東遊錄」 [西扉先生文集<sup>10)</sup> 卷3]

萊港 自丙子定約後 日月以侈 以大都會聞. 余欲觀人情順逆 時局形便 營一覽宿矣. 己亥孟夏 約總弟 漢楫 遂以八日乙酉伴行. 抵本校 止宿. 丙戌 入邑. 奚小負重 不能致遠 謀換錢不得. 故至唐項 訪具汝行 其子執禮甚謹 不許他適. 丁亥 付換船便. 夕次竹谷 曰進海地. 戊子 至黃橋 奉權孝翁 要往校宮. 有板詩 金慕齋按道時作 因敬次. 己丑 踰東田嶺. 午炊牛嶺店. 至月影臺 曰檜原地. 有柿木雙株 云是孤雲手種 而別無古久形. 立文昌遺墟碑 傍有丈 立石刻月影臺三字 文昌手筆云. 日夕訪鶴南齋. 小主鄭生克明 文雅有禮. 是夜 冰輪轉上 滄海萬里 銀柱弄波 晃朗璀璨 胸襟飄灑 如有羽化意. 孤雲之以月影名臺 良以此也. 庚寅 達馬浦. 日人方設館. 先入漕倉 見正堂 有一箇 卓坐 左右掛禁雜人三字牌. 左廡有四五倭 或臥或踞 無禮敬意. 出倉門 縱觀. 林檎櫛肆 舊皆國人所有 而將爲彼人所強奪. 聞近港十里 已爲許施也. 十里 至鳳巖津 舟逢趙華彥 聯筇投南枝而宿. 辛卯 雨微作 久乃發程. 踰安民嶺 是惟先祖義敏義肅公 戰捷處. 感吟一絕. 午炊德川 曰熊川地. 歷府抵素沙金氏莊. 其主曰泰玉 則表弟趙和允壻也. 壬辰 被挽再宿. 與和彥唱和. 癸巳 遂行 迤躡石花峙 午炊龍南 曰金海地. 夕投花木里 所經十里郊 皆是蘆田 悠然有南溪清興. 甲午抵府. 先詣駕洛陵所 謁崇善殿. 殿後有陵繚以周牆. 東有碑閣 敍王勳德系次 許性齋所撰也. 折而入南門 訪涵虛亭. 亭是先祖僉使公守邦時所創建. 環以池 跨以石橋 池中種菡萏 水涸無花葉. 渡橋上欄 用板上韻 寓追慕之感. 少前 登燕子樓 俯瞰大野. 日西 投安洞. 府東五里 有積巖成山 岌然在野中者 曰招仙臺. 昔居登王 常與曇仙遊此巖 刻王遺像 苔飾漫漶. 傳有將軍跡 在石云. 乙未 早發 五里至立巖津 中流回見 小閣臨絕壁上 其景可戀 而月夜最勝云. 舟

10) 『西扉先生文集』은 4권 2책의 목판본이다. 필자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子指焉. 行五里 曰平康津 又五里曰南昌津. 洛江至此 而分三叉也. 渡津曰龜浦. 夾江而下 有七點島 又下至明湖云. 夕宿德浦. 丙申 踰九德峙 前有石標 皆日人所買云. 少前 有一瓦屋 屋前後 皆花木 曰觀水屋. 全港用水 皆源此云. 日西 抵富民村 其戶可三百 其民以木道爲命. 丁酉 歷館越津 至影島 止宿. 戊戌 還渡至西館 憩日肆 覓換錢. 因周覽諸處. 蓋其樓觀器物 尚侈靡 欠完實 玲瓏瓌麗 眩不可狀. 日午 自館北從垣途 未半里 有門. 左右有塔 刻曰奉獻. 少入 有一莊 窮極華巧 謂神祠云. 少南 一莊院 群雛數百 方蹴鞠爲戲. 少西大莊 門外一丁 佩劍守之. 猛犬吠人欲齧 兵隊廳云. 還故肆 復用黃生爲鄉導 至昨處 有一倭 抱雛而立. 見我衣服 有尊敬意. 要入其莊 觀花卉 出二紙曰“願賜尊銜.” 各書五言詩 賜之. 彼亦有謝禮 因導之 示浴桶 舂米諸輪法 以及隊伍鍊習 僧堂佛場. 還書牌以授之 丸島周太郎也. 其人醇謹 無奸猾態 頗識長禮 可異也. 至東館 其殷與西館埒. 越小嶺 曰洋館 行數里 曰清館. 過草梁 歷舊館 至釜山 日薄且憊 投一陋店 艱度一宵. 己亥 曉甚. 冒行遇雨 投客主白姓家 少憩. 待晴乃行 抵東萊府 飲酒數杯 上靖遠樓 歎關鑰之雄壯. 下樓訪李秋水 其人已故矣. 五里 至溫泉水 平地湧出 不以雨暘增減. 區別二湯 以分男女 其一爲日人占據 毀傍近民舍 以造其寢舍 後必壯麗也. 庚子 一日三浴 又飲數碗水 覺身輕意爽 僊僊有遐舉想. 時天旱 忽雷雨 旋霽 大失民望. 辛丑 向梵魚寺. 計程十五里. 入洞 有石刻 大書曰 金魚洞天. 松陰行 登普濟樓 階凡三十級. 自樓至大雄殿 亦如之. 西有二層石塔 其傍立小石臺 四面風穴之. 山內凡九菴八房. 衰而憊 不得歷搜而止. 夜雨作 連朝. 壬寅 移明眞堂 緇徒淳厚 老老甚謹. 癸卯 乃發 二十里 至梁山郡 邑小如斗 登雙碧樓 次板詩. 有興海人在傍 相唱酬. 夜宿黃山驛 突冷不穩眠. 甲辰 行二十里 酒于車巖店. 至通度寺洞口 館腥已遠 仙源漸近 數里行松陰裏 松盡老檜夾道挺立. 入三重門 少南有萬歲樓 樓東曰鍾閣 對曰 靈山殿 殿前立大小二石塔. 稍入有閣碑 高數仞 色黑如漆 照人如鏡. 蔡學士所撰 如來

舍利舊蹟也. 大雄殿 雄傑無雙 而中無塑像 殿東繚牆 內有石塔 可百抱 下一層 四面皆鑿刻佛像 上一層中央 安石函 覆以石簷 象花蒂形 內藏 如來舍利與頭骨 所謂佛宗者 此也. 鷲西一洞府 殿宇連甍 花馨四時不絕 僧指數千 肅而有禮 誠希觀也. 乙巳 出寺 行三十里 飢困 止宿于蘇台洞. 丙午 渡勿禁津 雨下廉纖 煙洲霧汀 風致覺爽 賦詩以暢懷. 夕宿于金海之上東. 主人曹生 端而愿慤 盡敬長之道 名儀承也. 五月丁未朔 行四十里 宿中北. 戊申 歷自如驛 午次昌原府 客館頽敗 隣於傾覆. 時方邊釁日劇 朝不慮夕 而府以大都護 城圯隍復 繕修無人 竊爲守土者慨也. 二十里 至馬浦. 自此皆復路也. 己酉 過龜山 曰漆原地. 道邊有安燕閨. 安燕女名 其蹟甚異. 再適以報仇 以其後偶者 殺前夫也. 日西訪竹谷 權友已待久矣. 留于庚戌. 辛亥 道出新川 夕及于新化洞. 壬子憩于甘峙店. 昏始到家. 爲日二十九 爲行凡七百餘里. 以七耄衰脚 携十二歲小奚 無事言還 不謂無幸矣. 兒孫藏獲 莫不候迎獻賀.

자료7) 蓮溪 朴時燦의 「南遊錄」 [蓮溪文集<sup>11)</sup> 卷3]

萊府 南州雄鎮也. 人物之繁華 山川之明麗 甲於東方. 夙昔常願見 而未能者也. 歲赤鷄仲秋 與隣少金龜煥 理裝發程. 行十里 到周坊村 訪金友 適出外未還. 午饒後 雨下不絕. 因留宿. 翌日晴. 川流暴漲 不得已再宿書齋. 主人金友 持其先丈草稿而來 繙閱考訂 不覺山日之西矣. 翌日晴. 行到長沙 海天迷茫 風濤洶湧 但見海物列肆 交錯而已. 是日過清河邑 至廬峴下申生家. 翌日發行 到慶州境 茫茫大海 滿眼秋光. 行四十里 到杞谷前 忽雲氣漲天 驟雨將至 訪金上舍家. 主人前有一面

11) 『蓮溪文集』은 4권 2책의 석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의 고서원문자료를 이용하였다.

之雅 欣然相敘. 因請曰 京洛故人 有善題額者 惠以江吾二字 筆力奇健 江字取所居江西之義 而吾之一字 其意太露 願倩數行高文 以明吾志. 余辭不獲 忘拙構呈. 翌十二日晴. 意欲觀崇德殿享禮 而中間滯雨 上丁已過 遂東出向蔚山松亭 諸宗移接之村也. 右有鴉述嶺 接天聳翠. 史傳朴公堤上 入海不還 夫人登望化石. 左則東岱山 延袤海上 環抱東都. 及到鹿洞 松竹蔥鬱 前有雙華柱 傍有一草堂. 主人注書出外而還 相敘宗誼. 翌日見挽 禮待甚盛. 諸宗團會 觴詠暢懷. 十四日 主人注書強挽. 余來時 與本鄉人白景華 相約于蔚山青松里 不可淹留一處. 故固辭發行. 到青松里 景華果來待于宗人家矣. 初面相敘 情意款洽. 前有小塘 荷葉亭亭 四面青山 森松鬱立 正合其村名. 翌十五日 卽仲秋佳節也. 吾鄉則新稻未及茶薦 以重陽爲期 而此日爲客 自有感懷. 然而適在同宗家 酒肴陳陳 歡笑移日 不覺身在客中. 十六日 臨發 主人惓惓不已 以贖送之. 行數十里 至石川 有亭立于斷厓 澄江翠壁 松竹交映. 主人李上舍奎龍 一面如故 仍與聯枕. 或論文 或歎世. 余曰 “白首殘年 相見恐未易. 不可只寒暄而已. 以詩相和 以爲他日替面之資 何如?” 上舍曰 “諾.” 其夜 上舍以泄症委苦 不得如意. 余次其亭韻 遂與作別. 戀戀之意 溢於辭色. 是日行七十里. 未及萊府 宿于酒店 陰雨霏霏 自夜至晝. 溫井泉 出石間 熱如沸湯. 作室覆湯 又鑿石爲三桶 以爲沐浴之處 又分泉爲兩井 以別男女. 傍有金井山 山名之謂金井 以其溫水之出於其間耶? 湧出於中野川邊 而水旱無減云. 蓋異事也. 余亦一飲一浴 雖未知其效 而身上無塵垢 脫然灑如也. 行五里許 入萊府 小憩. 有四五人 來到相敘 半是同宗. 一宗人 授一緡錢 指委店主 使之善供 眞可謂百代至親. 其人以寓客來接城府 而家亦不甚饒云. 十九日 將向倭關 自釜山至監理營 粉牆綉闥 若仙境. 東西兩關 相距十餘里 重重起樓 色色列肆 綾羅錦繡 器用珍怪 令人眩耀 不可具狀. 又有火輪舂者 橫木運動 而數百舂杵 自相撞砧. 半日遊觀 歸宿于監理營外. 二十日 回程入釜山 城郭官府 可謂雄鎮 而廢壞空虛 不勝感慨. 仍上將臺 一峰聳出城中 其上

築石設堡 前有絕影島 尖峰列立爲捍門，臺下則海水曲入 爲一大浦口。回路暫入萊府 玩城堞樓臺。出西門 行五里 訪釜谷朴進士。茅屋蕭灑 花卉滿堦 雖非同宗 而款接之意 隱然深厚。二十日 向梵魚寺 入洞口 青松鬱立 黑石盤錯 石面多卿相題名。至寺門 堦級層高 門樓重疊。座定 進午飯。喫訖 玩佛堂 堂甚壯麗。住僧至三百餘。遂發行 歷路訪內院庵 登後麓。向梁山花山金進士家。二十二日 向密陽。是吾先鄉 平生所願見 而歷路透訪 雖非道理 自念衰境已迫 若過此時 則必難再動。行二十里 到石穴浦。又行數十里 投宿鼠田全氏家。二十三日 到新基宗氏家。有一少年迎接 容貌秀麗 辭氣雍容 乃主人季允也。俄而進午飯 良久 主人出外來到 慰余遠來勤苦 歎後屬疎遠 敦睦之誼 油然而色。相與聯枕。翌日 主人請留 用邵子觀物韻 相和。主人曰“余自少 專尚舉業 虛費光陰 未嘗留意經學 殊可愧也。”使季允 持書傳碁三百 而請教。余略設其文理接續 度數盈縮。翌朝 出大譜 泝其派系 不勝感懷。述同宗講誼說以贈。二十五日 將發 與主人往慕先亭。乃松隱公廬墓之地 而因而起亭於先壟之下 名曰慕先 如古之思亭也。登亭少憩。訪安承旨鍾惠 適時上京 其子亦不在家。與叔謙作別於中野。行三十里 訪鍾浦朴進士家。主人亦不在。行十里 入校洞孫校理。主人方居憂 一宵安寢。其家凡百 無異卿相。二十六日 朝後入城府 向發嶺南樓。丹青映空 一帶長江 縈回其下。蒼厓壁立 叢竹成林 阿娘烈廟 在其間。千門萬戶 羅列其右 平原曠野 眼界豁然 眞嶠南勝樓也。各處諸宗 不得盡訪 離家日久 歸思滔滔 遂決歸。行五十里 向清道 訪明臺李進士 已作故矣。宿于其從叔聖佺家。翌日作別 行三十里 訪金田宗人朴連字。其夜大雨不絕。連字曰“今日幸使佳客 於焉請見記行所述。”余出示之。遍觀訖 慨然歎曰“吾有避世之志 三入智異山 又棲止于雲門山。今更暫留于此。願得幽居記 以賁山門。”余辭謝不獲 俄而雨止 遂別。主人恨其前夕之未違也。二十八日 行八十里 至永川邑 日已暮矣。入浩然亭 棟宇翼然 重門深鎖 不得登覽。翌朝 登朝陽閣 次板上韻。二十九日 行六十里 至笠巖 訪權氏家。上里

有旅軒張先生俎豆之所 而撤院以後 影幀尚在 時適朔日行享禮 遠近士林齊會云. 遂向本所 諸儒果列坐於日躋堂. 夕後 有一知面人 請曰 “遠路行李 必有餘憊. 吾家在此 從便就寢 何如?” 余從往穩宿. 翌朝借禮服 參享禮. 晚發行 三十里至五舍村先山下 入山直家 日已過午矣. 當省山留宿 而日已薰蒸 似有雨徵 發至泥峴前 已黃昏. 宿于酒店. 晨朝 細雨不止. 冒雨踰泥峴 訪趙荊玉相斂 仍小酌. 午後雨歇 踰雨雪嶺 到家. 乃九月初二日也. 計往還路 幾乎千里 計其費日 則殆近一月也.